

세계유산특별법제정 촉구 공동성명

정헌을 익산시장,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임시회의 참석... 2020년 공동사업 발굴 등 안건 논의

정헌을 익산시장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매년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문화유산산업전 개막식에 맞춰 개최됐으며, 정헌을 익산시장(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정섭 공주시장(협의회 회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등 17개 회원도시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규 회원도시 가입, 2020년 공동사업 발굴, 20대 국회 세계유산특별법 추진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대 국회(2016년)에서 발의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등 국회통과를 위해 회원도시 명의로 세계유산특별법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시장은 회의 후 정재숙 문화재청



정헌을 익산시장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장과 17개 회원도시 대표들이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세계유산특별법 등 세계유산 관련 현안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제문화유산산업전에 설치된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 회원도시 홍보부스를 관람한 후 이어지는 개막

식에 참석했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회원도시가 22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의의 대외적 역량도 높아졌다"며 "세계유산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긴밀하게 공동협력·대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과 경북 경주시에서 주최하는 국제문화유산산업전은 19일부터 21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 및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관광브랜드 개발 본격화

관광정책성 확립, 익산 특색 담은 지속가능 사업 추진

익산시가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브랜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헌을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민단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관광브랜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관광브랜드 개발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익산 관광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슬로건과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익산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포지셔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정책성 확립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

고, 사업진행 시 필요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익산의 역사, 문화, 지역특성, 대외적 이미지 등 관광브랜드 개발 사전 자료조사, 시민이 생각하는 익산의 이미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된 관광 브랜드를 활용하여 500만 관광도시 조성에 힘쓴다.

개발된 관광브랜드는 언론매체, 홈페이지, 리플릿 등 통합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캐릭터 및 브랜드를 활용한 기념품 제작, 관광안내소 등의 브랜드 상징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익산시 관광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익산만의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 추진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식량작물공공(들녘)경영체육성(시설·장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법인체 6개소가 선정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량작물공공(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공동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식량작물공공(들녘) 경영체육성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소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논 타작물 확대?공동농업 역량, 시설장비의 적정성, 실천 의지' 등이 인정돼 사업비 증액이 확정돼 추가로 국비 1억, 도비 2천4백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비 증액으로 범용콤바인, 롱정선기 등을 추가로 지원해 작년부터 시행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연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명품 군산쌀 만들기 벼농사 종합평가회

출수가 2~3일 정도 지연 됐으나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명품 군산쌀 만들기 일환으로 지역 농업의 주력작목인 벼 재배 농업인들과 시범사업 단지 회원들과 함께 2019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19일 열린 이날 평가회는 벼농사 전반에 대한 성과와 벼 재배 상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을 사례별로 제시했으며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 방제시간 단축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새로운 기능 소개와 현지포장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한 벼 시

험포장에서 30여 가지 벼 품종 비교 전시포와 소주소식 등 신기술 지역적응 시험포장을 견학하고 관내 벼농사 관련 시범사업 단지 현장평가회를 끝으로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마쳤다.

올 해는 이양 후 출수가까지 적산은도는 낮았고 일조량은 약간 높게 나타나 출수가 2~3일 정도 지연됐으나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하순 출수가 이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한 습한 환경과 통풍이 원활하지 못해 세균성 벼 알마름병이 일

부 발생했으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도 증가했다.

또한 9월 상순에는 태풍 링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70ha 정도의 벼가 쓰러졌으며 태풍 통과 시 3~4시간 동안 건조한 바람이 불어 특히 2모작 논에서 백수현상의 일종인 변색립이 발생해 쌀품질 수량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명품 군산쌀 경쟁력 향상과 브랜드까지 유지를 위해 금년도 벼농사 종합평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벼농사 기술지도에 적극 반영, 군산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노인 학대 예방교육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문화동 소재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분서비스 제공기관(68개소)의 대표자 및 제공인력 1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소방안전 교육과 노인학대의 유형을 교육시켜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산시 자체교육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시간은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예방안전팀장 김춘주)에서 시설내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재난대피요령 등 구체적인 실천적인 대응법을 강의했다.

다음 시간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오타군 팀장)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교육에 참여한 제공기관에서 노인 인권 감수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소방서, 관내 요양시설 방문 소방안전지도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관내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소방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소방안전지도는 과거 제천 및

밀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교훈 삼아 현장과 부합되는 소방안전지도를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형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

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소방서는 요양시설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를 청취하고 비상구 및 소방시설 관리실태 등을 확인했으며 주요시설물 현황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대상 환경에 맞는 안전지도를 제공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어양동 마하로 미개설 구간 도로개설 공사 순항

익산시는 어양동 마하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8년도에 3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백제공역사에서 어양중학교 사이 230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11월 중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3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양중학교에서 부송리온프라이

및 1단지 사이 140m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7월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난 해소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